

니 이목을 확실히 끌지. 화려한 가구 디자인으로 유명한 베르너 팬톤Verner Panton은 “색깔이 형태보다 중요하다(Color plays a greater role than form)”고 강조하기까지 해.

청각도 시각화할 수 있을까? 물론! ECM은 세상에서 음반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야. ECM 앨범커버 좀 검색해봐. 어때, 보기만 해도 그 음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? 이 앨범에 수록된 곡이 어떤지는 몰라도 음반 아트웍 때문에라도 사고 싶어져.

광고 사진 등에서 보이는 시각적 질감이나 모양은 단단해 보인다거나 부드러워서 편안해 보인다거나 거칠거칠한 느낌이 좋아 보인다는 등 촉감을 상상하게 만들지.

요즘 마케팅에 공감각(共感覺, synesthesia)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, 인간의 오감 중 한 영역의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다른 영역의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말하거든. 청각이나 촉각, 후각, 미각 등 다른 감각은 시각과 믹스될 때 그 효과가 증폭돼.

그러니 서로 다른 감각을 어떻게 엮을지, 특히 시각을 통한 감각의 상호작용 효과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보렴.